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8 November_Vol.190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삼성KPMG





Cover story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삼정KPMG

‘21세기의 비틀스’라 불리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덕분에 기분 좋은 한류의 바람이 다시금 불고 있습니다.

삼정KPMG는 ‘방탄소년단’처럼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곳곳에서 Globalization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4개국의 KPMG Global Network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Contents

November 2018 Vol.190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Issue Focus I**
'2018 삼성KPMG GKP Conference 개최'
- 06 **Issue Focus II**
기업의 가치를 이끌어낸 GKP 스토리
- 08 **Team Story**
삼성KPMG Forensic팀
- 10 **Client+**
LF
- 12 **Market Reader**
전기자동차 산업과 핵심 밸류체인 시장의 동향
- 14 **Expert's Advice**
중국 수출입 및 통상 환경의 변화
- 15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7 **삼.소.해**
삼성인만의 추위 극복 노하우는?
- 18 **인재양성소**
2018 GNPC에 참여한 New Leader를 만나다!
- 20 **Talk+Play+Love**
한강에서 즐긴 '선셋 카약' 체험기
- 22 **Culture & Etiquette**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미국의 문화와 에티켓
- 24 **KPMG Story**
New Director가 생각하는 'Value based leadership'이란?
- 26 **Samjong News**
2018 하반기 Advisory 신입 공채 채용 외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 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018 GKP Conference 특집 I 기업의 Globalization 위한 협업과 교류의 장 ‘2018 삼성KPMG GKP Conference 개최’

지난 10월 16일 삼성KPMG 본사에서 ‘2018 삼성KPMG Global Korea Practice Conference’ (이하 ‘2018 GKP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올해로 7번째로 개최된 ‘GKP 컨퍼런스’에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GKP Network의 긴밀한 협업을 약속하고,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1. ‘2018 GKP 컨퍼런스’ 현장에 모인 전 세계 KPMG 파트너 멤버 및 Korea Desk 담당자 등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외감법 등 감사 환경 변화와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에 주목

삼성KPMG는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전 세계 21개국 29개 KPMG 오피스에 Korea Desk를 설치하여, 34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매년 가을이면 Global Korea Practice Network 내의 협업 강화 및 현 이슈 진단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GKP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018 GKP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KPMG 파트너 및 멤버, Korea Desk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논의를 펼쳤다. 삼성KPMG 김교태 회장은 “GKP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외부감사법 개정 등 지난 12개월 동안 한국의 감사 시장은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GKP

Network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변화에 발맞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 및 감사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한국 기업들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감사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올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이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으며,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 상황을 반영해 ‘2018 GKP 컨퍼런스’에는 남북 경제협력에 관련 대북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의 리더 김광석 전무가 연사로 나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북한에서의 산업별 비즈니스 기회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 한국 기업 방문 확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고민

올해 '2018 GKP 컨퍼런스'에서는 지난해보다 기업 방문 수를 늘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33개사보다 수를 늘린 총 45개사를 각국의 파트너 및 Korea Desk 현지 전문가 등이 방문해, 기업이 안고 있는 이슈 및 문제점 파악, 또 해외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GKP 컨퍼런스'에 참여한 멕시코의 Juan Carlos Guerra 파트너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한국 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이 한국 기업에 제공한 글로벌 비즈니스 우수 사례를 통해, 앞으로 한국 기업에 제공할 만한 서비스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KPMG Global의 Russell Ackerman 이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공유된 한국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통해 Global Lead Partner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방향성 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노력과 열정 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현지 국가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 같다”며, 무엇보다 컨퍼런스를 통해 각 나라의 Korea Practice 파트너,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의 협업이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 GKP Network 강화 및 협력 기대,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및 가치 창출에 힘쓸 것

삼정KPMG는 이번 'GKP 컨퍼런스'와 함께 최근 중미 무역전쟁으로 새로운 투자, 진출 대상국으로 떠오른 인도와 베트남, 멕시코 3개국



‘해외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도 개최했다. 각국의 KPMG 파트너들과 삼정KPMG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각국의 경제 및 투자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에도 기업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해, 현지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삼정KPMG Global Korea Practice는 최근 인도 벵갈루루 Korea Desk를 신설한 데 이어, GKP Network를 점차 확대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GKP Network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기회를 찾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CONTACT US

BD&MARKETS 신경철 부대표

Tel. 02-2112-0788 / E-mail.kshin@kr.kpmg.com

BD&MARKETS 윤효돈 S.MANAGER

Tel. 02-2112-3449 / E-mail.hyodonyoon@kr.kpmg.com



2, 3.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및 가치 창출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 GKP Conference 특집 II

기업의 가치를 이끌어낸 GKP 스토리



인도 Korea Desk 조상용 이사 &
KPMG 인도 Manoj Pardasani 파트너

인도 GST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도 Korea Desk!

Q 인도 Korea Desk를 소개한다면?

KPMG 인도는 주요 도시에 21개 오피스를 운영 중이며,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고객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북부 델리, 남부 벵갈루루에 위치한 인도 Korea Desk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감사, 세무, 컨설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은 기업의 글로벌 성공 지원 사례가 있다면?

2016년 8월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 상원 만장일치 통과'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비재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Next China'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고민을 접했던 터라 GST 도입으로 인도가 단일 경제권화되어 커다란 성장의 추진력이 발생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로 인해 인도 파견을 결심하게 됐고, 부임 후에는 다수의 GST 도입 용역을 지원하면서 인도 GST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GST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GST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Korea Desk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 Korea Desk는 한국 A 자동차 기업의 인도 진출을 돕는 것부터 GST 체제 하의 모든 세금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수치화를 토대로 주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A 자동차 기업의 주정부 협상 과정에 늘 동행하면서 인도 세법에 대한 궁금증 및 향후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주정부와의 원활한 협상을 도왔습니다. 결국 GST에 대한 전문성과 KPMG 대관 팀의 노력은 당초 기대보다 좋은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이 좋은 결과는 인도 Korea Desk가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 지원, 감사, 세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인도 Korea Desk는 추가로 파견자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018 GKP 컨퍼런스' 중 인도 Korea Desk가 최고의 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는?

인도를 잘 아는 한국인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 대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외에는 유의 사항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인도 파견 근무 중 한국 기업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한글 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부차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재인도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인도 통합부가가치세의 이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2019년에는 다수의 GST 변경 사항, 실무 이슈들을 보강한 GST 실무 서적과 다양한 인도 세무 실무를 안내할 종합 서적의 집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KPMG가 Clear Choice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2018 GKP 컨퍼런스' 개최에 앞서, 삼정KPMG는 '해외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새롭게 투자, 진출 대상국으로 부상한 인도와 베트남, 멕시코 3개국 KPMG 파트너들과 현지 파견된 삼정KPMG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그중 인도와 베트남 Korea Desk를 만나 기업의 가치를 이끈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보고자 한다.

KPMG 베트남 & 삼정KPMG와의 진정한 협업으로 기업 만족도 UP!

Q 베트남 Korea Desk를 소개한다면?

베트남 Korea Desk는 2011년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및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Korea Desk는 현지에서 Market 팀 소속으로 신규 고객 개발, 사업전략 수립, 고객사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롯데호텔, CJ CGV, SK에너지, 포스코, LG전자, STIC investment 등이 있으며, 고객들에게 감사, 세무뿐만 아니라 시장조사, M&A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협업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성공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면?

베트남은 2017년부터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관련 규정을 도입했고, 이에 보다 강화된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KPMG 베트남은 발 빠르게 대응하여 2017년 9월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각각 Transfer Pricing & Customs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보다 전문성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삼정KPMG 이전가격본부의 강길원 전무님과 백승목 상무님께서 베트남으로 초빙되어 직접 세미나의 일부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호치민은 69개의 업체 100여 명이, 하노이는 53개 업체 79명이 참석했으며, 코오롱, 이렌텍, SSNewtech 등 약 10여 개의 업체와는 세미나 후에 개별적으로 미팅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세미나 이후 많은 수의 한국 기업들에서 업무제안 요청이 들어와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업무 및 용역제공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 국가의 파트너들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KPMG 베트남과 삼정KPMG의 인원교류를 위한 Exchange Program에 대해 협의했으며, 2018년도 8월부터 삼정KPMG 이전가격본부의 심찬용 매니저가 KPMG 베트남에서, KPMG 베트남의 Nguyen Thuy Trang 매니저는 삼정KPMG에서 업무를 시

작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Big4 중에서는 KPMG가 가장 먼저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이전가격 업무 관련 현지 고객사 대응 및 마케팅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는?

KPMG 베트남에서는 매년 TAX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Japanese Desk에서도 자체적으로 매년 TAX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Korea Desk의 경우 Japanese Desk보다 인원도 적고 파견 기간이 짧아 정기적인 세미나를 준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 세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Korea Desk의 인원도 작년부터 1명에서 2명으로 늘어 업무부담이 감소한 상황이므로 현지 한국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로 진행하는 TAX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TAX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지역의 전문가로 성장하여 베트남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베트남 Korea Desk
원 일 S.Manager, 박송학 Manager &
KPMG 베트남 Thanh Tam Tran 파트너 (가운데)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삼성KPMG 포렌식팀의 밝은 모습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자본시장의 등대 삼성KPMG Forensic팀

최근 뉴스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법의학'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 과정을 총칭한다. 삼성KPMG는 2002년 Forensic 전문팀을 신설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있다. Investigation과 Digital Forensic 경험을 기반으로 부정행위 예방, 적발 및 대응 단계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감법 시행, 기업 부정에 대해 책임 있고 능동적인 대처 필요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 개정안에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시, 외부 조사 전문가에 의한 조사업무 의무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사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감법의 영향으로 보다 많은 부정 사건이 기업 외부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이 부정에 대해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이 원천적으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단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기업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회계 분석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 통제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삼성KPMG 포렌식팀,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경제 범죄자 예방에 힘써

기업들은 내부적인 부정 혐의가 발견됐을 때, 적극적으로 포렌식 전문가를 활용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삼성KPMG Forensic팀(이하 포렌식팀)은 2002년 신설되어 다양한 기업 부정조사 업무 경험과 최고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역량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예방, 적발 및 대응 단계까지 모든 분야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날로 지능화되는 경제 범죄자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조사방식에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접목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복잡한 경제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회계사(전직 검찰 조사 전문가 포함), 변호사 및 디지털 포렌식 기술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다. 이외에도 154개국 19만 7,000명으로 구성된 KPMG Global

Network를 통해 국가 제약 없이 해외 법인에 대한 eDiscovery 및 Forensic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날로 복잡해지는 경제 범죄 예방 및 적발하는 최강의 포렌식팀으로 자리매김할 것

한국 포렌식 서비스 시장은 한국 경제가 성숙되고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회계 부정 등 경제 범죄는 복잡해 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에 대한 투명

하고 철저한 조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삼정 KPMG 포렌식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과정에서 발견된 회계부정으로 인한 회계처리기준위반 혐의에 대한 많은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진 혹은 감사,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빠르고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사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포렌식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삼정KPMG 포렌식팀’ 서비스



Investigation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부정혐의 발생 시 Digital Forensic Technology 및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부정 발생 여부를 조사함.



eDiscovery Service

전자 문서(ESI)의 식별부터 개시까지, EDM(The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에서 요구하는 eDiscovery 절차를 준수해, 양질의 국내외 eDiscovery 지원 업무를 제공함.



Forensic Technology Service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검토, 기업 정보자산 유출 탐지 및 관리현황 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를 지원함.



Dispute Advisory Services

국내외 기업 간의 소송, 중재 및 조정 사건에 대하여, 회계 전문가로서 Expert Witness,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Support 등과 같은 자문용역을 제공함.



Fraud Risk Management

부정예방, 부정적발 및 발생한 부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회사의 규정, 프로그램, 및 통제시스템을 설계, 구축, 및 평가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부정위험평가진단서비스 / 윤리경영프로그램 설계, 구축, 진단 자문 / Fraud Awareness Training & Survey / 내부고발제도 운영 대행 서비스)

‘삼정KPMG 포렌식팀’을 소개한다면?

“삼정KPMG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조사 전문가와 우수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 부분에서 국내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렌식 조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부정 관련 사건의 대응이나 사전적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우 상무(팀 리더)

Tel. 02-2112-6756 / E-mail. jko1@kr.kpmg.com

“삼정KPMG 포렌식팀은 다양하고 복잡한 조사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입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복잡한 사건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삼정KPMG 포렌식팀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호 상무

Tel. 02-2112-7820 / E-mail. jihoheo@kr.kpmg.com

“삼정KPMG 포렌식팀은 다수의 회계부정 의혹 조사업무를 통하여 효과적인 조사업무수행을 위한 노하우를 갖추었습니다. 더불어 나날이 지능화되어 가는 회계부정기법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팀 내 전문가들이 항상 새로운 조사방법을 연구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삼정KPMG 포렌식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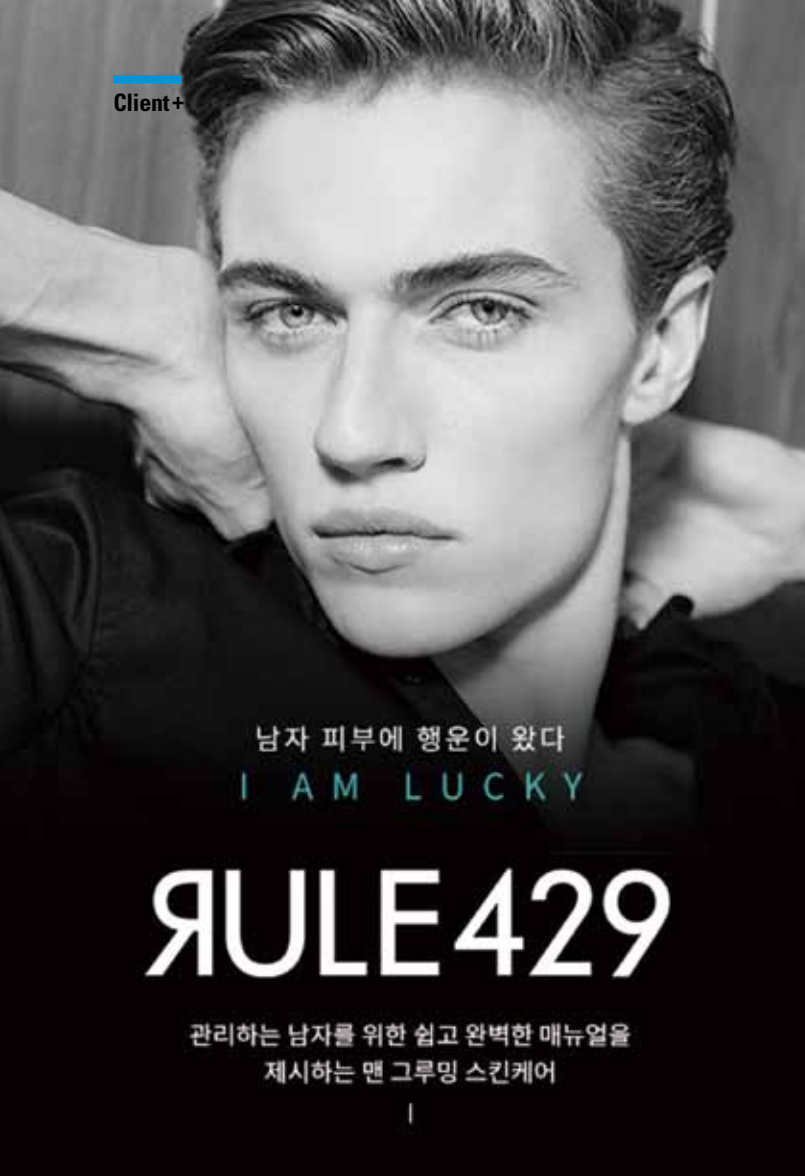
김지은 차장

Tel. 02-2112-7066 / E-mail. jkim89@kr.kpmg.com

“삼정KPMG 포렌식팀의 가장 큰 장점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인 의견 개진과 의사 소통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팀 내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회계부정 조사뿐만 아니라 미국 소송 eDiscovery 지원, 공정위 조사 대비, 기업 내 기밀 유출, 일반 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정은 차장

Tel. 02-2112-0889 / E-mail. jchoi18@kr.kpmg.com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 매니지먼트 회사

LF는 정통 신사복에서부터 세련된 감성을 전달하는 숙녀복,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표현하는 캐주얼과 스포츠웨어, 개성 넘치는 액세서리와 아웃도어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브랜드들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LF는 모던 트레이디셔널 캐주얼 '헤지스', 영국 클래식 웨어 '닥스', 혁신적인 패턴으로 유명한 신사복 '마에스트로', 유럽풍 정통 아웃도어 '라푸마', 뉴욕 감성 컨템포러리 '질스튜어트뉴욕' 등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자벨마랑', '레오나르도', '바네사브루노', '조셉' 등 수입 브랜드들과 '라움', '라움에디션', '어라운드더코너' 등 유행을 선도하는 리테일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1974년 한반도를 상징하는 브랜드인 '반도'로 우리나라 최초 고급 기성복 사업을 시작한 LF는 지난 40년 넘게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국내 패션 산업의 지평을 열어왔다. 설립 첫째 반도 패션 명동 1호점을 시작으로 1983년 국내 최초의 플라자급 대형 종합 매장 개장에 이어 1998년 업계 최초의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 구축, 2000년 웹 포스(Web POS) 시스템 등을 통해 국내 패션 유통을 선도해왔으며 2003년에는 고객관계관리(CRM)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마케팅 측면에서 고객 서비스를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4년 설립 이후 40년 넘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LF(Life in Future). 신사복 마에스트로, 영국풍 정통 트레이디셔널 닥스, 모던 트레이디셔널 캐주얼 헤지스, 유럽풍 정통 아웃도어 라푸마 등의 다양한 브랜드로 국내 최고의 패션문화기업을 넘어,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미래 생활문화기업, LF



LF 사옥전경(동관)

패션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

2006년 LG상사와의 분리 후 해외시장 진출, 유통망 확대 및 다변화, 외식사업 진출 등을 추진해온 LF는 2014년 LG패션에서 'Life in Future'의 약자인 LF로 사명을 변경하며 단순히 옷을 만들고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 개개인에게 알맞은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미래 생활문화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LF는 2014년 새 단장하여 오픈한 LF몰(www.lfmall.co.kr)을 국내 패션업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시켰으며 '하프클럽닷컴', 유아동 전문 쇼핑몰 '보리보리' 등을 보유한 패션 전문 온라인 기업 트라이씨클을 인수하며 고가부터 중저가 브랜드군까지 고르게 아우르는 균형 잡힌 온라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수입주류와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스파클링 와인 '버니니', 프리미엄 데킬라 '페트론' 등을 수입하는 수입주류 전문 유통업체 인덜지의 지분을 50% 이상 인수해 주류 시장에 진출했다. 자회사 LF푸드를 통해 각각 일본 식자재 전문 국내 유통업체인 '모노링크'와 유럽산 식자재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식자재 유통업체 '구르메F&B코리아'를 인수해 식자재 유통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LF푸드가 운영 중인 외식 프랜차이즈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불리 1803'과 네덜란드 화장품 브랜드 '그린랜드', '그라네파스텔'을 국내 시장에 론칭하며 수입 화장품 유통사업에 진출했으며 올해에는 LF 대표 브랜드 헤지스에서 자체 남성 화장품 브랜드 '룰429'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사업 영역을 강화하고 있다.



LF 닥스 2018 F/W 화보



LF 헤지스 맨 스킨케어 '룰429' 론칭 행사

행복한 가정 & 즐거운 일터

LF는 '임직원들의 행복이 곧 회사 전체의 행복'이라는 원칙 하에 임직원들의 워라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일할 맛 나는 직장, 마음껏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LF는 징검다리 휴일, 명절 전후 등 일 년에 약 10일 정도를 전 직원이 함께 쉬는 전사 휴일제를 실시, 원활한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년 말에 지정일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리프레시(Refresh)를 장려하고 있다. 업무 외에도 다양한 재능을 계발하고 임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내 동호회 신청을 받고 활동비를 지원함에 따라 현재 LF 내에는 축구, 야구, 캠핑, 자전거, 와인, 발레, 꽃꽂이, 밴드 등 15개가 넘는 사내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여성 임직원의 비율이 높은 LF에서는 출산축하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물론 고급 리클라이너 의자와 젖병 소독기, 배수 설비를 갖춘 사내 모성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노무사 외부 전문가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유아 자녀의 보육시설 퇴원 시간과 임직원 퇴근 시간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해 임직원들의 자택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파견해주는 개념의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의 실질적인 고민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기자동차 산업과 핵심 밸류체인의 시장 동향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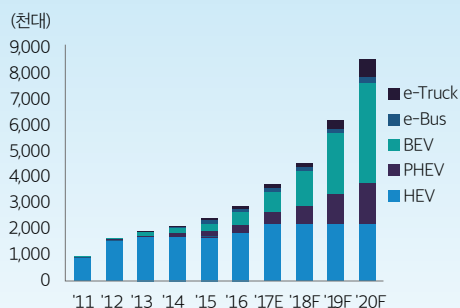
2017년 기준 전 세계 전기자동차의 신차 판매는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으며, 누적 기준으로 300만 대를 넘어섰다. 자동차 판매 시장의 전반적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판매는 2017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54%의 고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본격적인 성장의 배경으로는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신규 모델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리튬이온배터리의 성능 개선과 생산비용 감소로 인한 가격 경쟁력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성장의 발목을 잡던 제한적인 주행거리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 덕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즉,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장에는 배터리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며, 연관 산업과의 밸류체인(Value Chain) 강화가 산업 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배터리 산업

전기자동차의 밸류체인은 배터리 산업부터 시작된다. 배터리는 전기자동차 생산원가의 40~50%를 차지하며 완성차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핵심부품이자, 최근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의 기술적 난관들이 해결되면서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방산업인 전기자동차 시장

전기자동차 핵심 밸류체인별 시장동향과 주요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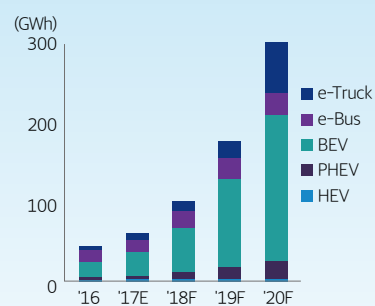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Source: SNE Research

Note: HEV(Hybrid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전기차),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차), BEV(Battery Electric Vehicle, 배터리전기차)

EV용 이차전지 시장 전망(배터리 용량)



Source: SNE Research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 산업은 최첨단 IT 기술이 융합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수소연료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인공지능형 자율주행차 등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은 <Issue Monitor 88호>를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과 주요 후방산업인 배터리 산업, 원자재 시장의 동향과 그 이슈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완성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업체까지도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기업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모색해봤다.

의 성장 가속화로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시장 규모 또한 2017년 기준 94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37% 상승한 317억 달러로 전망되며, 2025년에는 979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면서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졌다.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전기자동차들이 대량 양산되는 시점에 현재의 배터리 기술보다 더 진보된 고밀도·고효율의 3세대 배터리를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기업 생존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기술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즉,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기술 내재화를 통한 수직계열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배터리 외부 조달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체 생산을 목표로 하는 내재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며 완성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지 양산에 성공하면 미래의 배터리 시장 판도는 크게 바뀔 수 있다.

|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확보가 중요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의 빠른 성장은 핵심 원자재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시켰다. 수요의 증가는 가격 상승을 야기했으며, 원재료 가격이 배터리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업체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기자동차 수요 확대와 장거리 주행 경쟁 가속화로 고용량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코발트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이다. 또한 다른 핵심소재인 리튬 시장 역시 가격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 등 모든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변동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수년 내 원자재 공급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확보는 다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중요한 이슈이다. 안정적인 수급 확보를 위해 각 기업은 타 기업과 협력 강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JV) 검토, 광산 직접 투자 등 유연한 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 확립을 위해 원자재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도 해외 광산 기업과의 제휴 및 지분 인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잠재력이 있는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ONTACT US

삼성KPMG 자동차산업팀 리더

위승훈 부대표

Tel. 02-2112-0620

E-mail. swi@kr.kpmg.com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장진영 책임연구원

Tel. 02-2112-7095

E-mail. jinyoungchang@kr.kpmg.com

중국 수출입 및 통상 환경의 변화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KPMG 전문가를 통해
중미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입 및 통상 환경
변화와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KPMG 관세법인
김태주 상무

Q. 최근 중미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입 및 통상 환경의 변화는 어떠한가요?

A.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각 국가는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슈퍼 301조를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자의적인 보복관세 부과 절차를 마련했으며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투자제한, 수출쿼터제한 등 다양한 방안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9월 24일을 기점으로 슈퍼 301조를 통해 5,745개 물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향후 철강, 알루미늄과 자동차에 대해 고세율의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되는 무역 제재 때문에 중국 소재 해외법인과 중국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수입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Q. 국내 기업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A. 무역전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 중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 및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미국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보복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복관세는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으로 부과되며,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 기준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의미합니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란 일반적인 무역조치 시행에 있어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하며, 국내 기업에서 중국산 물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후 미국에 수출할 때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보복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부과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Supply Chain의 변경을 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Q. 중국 소재 해외법인들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중국에 소재한 해외법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보복관세 대상이라면,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Supply Chain 변경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출국을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 전환하거나, 원재료 조달 국가를 변경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Supply Chain 변경 방안을 기반으로 미국의 대(對)중 무역제재의 요건 회피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 및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원산지 조사 등으로 인한 수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00%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맛있는 경제>에서는 최근 가장 이슈를 모은 시사·경제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시사·경제 용어를 함께 배워보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USMCA)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 지역 3국은 1994년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개정한 새 무역협정에 최근 합의했다. 2017년 8월 나프타 재협상에 들어간 미국은 올해 8월 멕시코에 이어 9월 캐나다의 합의를 극적으로 끌어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협정의 명칭을 나프타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으로 변경했다. 새 협정에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의 무관세 적용조건 강화, 무역확장법 232조 적시에 따른 관세 부과 기정사실화, 환율 조작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투키디데스 함정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최근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까지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과 오랜 기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와중에 많은 전문가들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그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 (2017)』에서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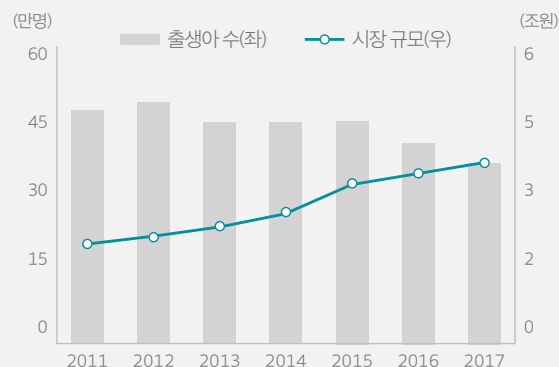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낮아진 출산율,

But 국내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확대!

출생아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2017년 3조6,000억 원 수준으로 2011년 대비 두 배 가량 확대됐다. 저출산 기조는 심화되고 있지만, 자녀를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부모의 인식이 변화되어 0~14세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의류, 식품, 완구, 키즈카페, 교육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엔젤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 규모 및 출생아 수 추이



자료: 삼성KPMG 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데이터 이용 추계

행복한 일터

삼.소.해

인재양성소

Talk+Play+Love

Culture & Etiquette

KPMG Story

Samjong News



삼정인, 소개해주세요!

삼정인 겨울맞이! 삼정인만의 추위 극복 노하우는?

11월 7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다. 올해는 유난히 춥다는 겨울을 대비해, 삼정인만의 추위를 이겨내는 노하우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삼정인들이 소개하는 추위 극복법에 주목해보자.

겨울산 등정으로 추위 이겨요! 김주호 Manager (B&F2)

지나해 운동을 좋아하는 동료들과 함께 겨울 지리산 천왕봉을 등정했어요. 1박 2일 간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며, 때론 너무 춥고 힘들어서 오던 길로 다시금 내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작한 건 끝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겨울을 제대로 만끽하고 왔어요. 회계사에게는 더욱 혹독한 계절인 겨울을 행복하게 나기 위해 저는 겨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겨울산 등정을 추천해요.



철인3종경기 준비하며 추위 극복 서다은 Associate (IM1)

날카로운 찬바람이 더욱 세차질수록, 몸은 더욱 동그랗게 움츠러드는 겨울이 코앞이네요.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지 갓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저는 서울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작년에 뼈 시리게 겪어보았기에, 올겨울은 운동을 즐기며 추위를 이겨보려고 해요. 며칠 전 처음 나갔던 철인3종경기에서 운 좋게 순위 안에 들어 더욱 운동에 재미를 느끼고, 내년엔 더 다이내믹한 철인3종경기 코스 출전을 위해 꾸준히 연습할 생각이예요. 이번 시즌도 다같이 뜨겁게 버닝 업!

이불 밖은 위험해~! 추위에는 집이 최고! 김선아 Associate (DPP)

추울 땐 집이죠! 찬 바람 뽀뽀 부는 날 침대 속에서 여유를 되찾을 때 행복해요. 일상에 치여 못했던 생각 정리도 하고 혼영(혼자 영화)도 하고 밀린 다이어리 정리도 하고 밀린 예능도 보다 보면 하루가 너무 짧죠. 따뜻한 커피와 달달한 디저트까지 있다면 침대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바람소리를 BGM 삼아 혼자 여유를 즐기다 보면 추위는 어느새 잊혀지고 마음도 따뜻해져요.

이한 치한, 스키 타며 추위 즐겨요~ 이의연 Analyst (Deal Advisory5)

'이한 치한'이라는 말도 있듯이, 매해 겨울이 되면 추운 날씨에만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을 찾아 다니는 편이에요. 특히, 겨울이 되면 가장 생각나는 스포츠 중 하나인 스키를 타러 가요. 가장 높은 포인트에서 평지가 보일 때까지 오랜 시간 빠르게 내려오다 보면 눈에 잡히는 절경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특히나 내려와서 먹는 따뜻한 어묵 국물도 추위를 잊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2018 GNPC에 참여한 New Leader를 만나다!



노정환 상무

김태준 상무

이진연 상무

박은숙 상무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8 Global New Partner's Conference(GNPC)가 열렸다. GNPC는 154개국 KPMG 멤버 펌의 신임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로, 삼정KPMG에서는 총 28명의 신임 파트너가 참석했다. '2018 GNPC'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참석한 신임 파트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GNPC!

노정환 GNPC는 전 세계 신임 파트너들이 모여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로, 올해는 630여 명의 신임 파트너들과 배우자까지 총 1,100여 명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고 해요. KPMG의 한 일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에 축하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진연 저 역시도, KPMG Global Network의 Power를 새삼 느낄 수 있었던 행사였어요. 최대 규모라는 부분에서 성장하는 KPMG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전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신임 파트너들의 모습을 보면서 파트너 동기들이 생겼다는 자부심과 함께 만들어갈 KPMG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생겼어요.

김태준 맞아요, 신임 파트너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서로 다른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있지만,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퀄리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가 서로 하나 되게 해주었어요.

박은숙 저는 행사 첫날, 바르셀로나 시내를 누비며 각종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신임 파트너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 조직에서 함께 성장해온 가족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번 행사로 KPMG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며 비전이 있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으며, 우리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조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 GNPC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세션은?

김태준 가장 기억에 남은 세션은 Bill Thomas 회장의 연설이었죠. 전문가로 살아오는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된 소통과 Relationship의 중요성을 설명해줬어요. 특히, KPMG의 한 수장으로서 갖는 고민과 어려움을 되려, 새로운 기회로 생각해왔다는 점은 반드시 제가 기억하고 실행해봐야 할 주요한 Action Plan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노정환 저 역시도 Bill Thomas 회장의 세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본인의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과 알고 지낸 지 몇 년째인지에 대해 세세히 설명해줬어요. 또한, 본인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배우자라는 점과 KPMG Global 회장 선출 전에 열린 KPMG 이사회에서 '본인에게 가족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KPMG'라고 말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박은숙 맞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한번 맺은 인연을 오랜 시간 진심으로 본인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온 Bill 회장의 스토리는 인상적이었죠. 뿐만 아니라 'Gala dinner Party'도 기억에 남아요. 멋지게 차려입은 전 세계 KPMG 파트너들이 부부동반으로 파티에 참석해 밴드의 축하공연, 무제한 제공되는 주류와 음식 그리고 춤을 함께 즐기며 서로의 성취를 마음껏 축하했어요. 오랜 기간 KPMG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저의 노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KPMG 신입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진연 저는 외부 초청 인사인 Mike Walsh의 강연 중 "The Best way to help your clients prepare for that future is to reinvent, redesign and reimagine what you do"라는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지금까지 경험을 기반으로 제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준 것 같아요. 그간 해온 일과 그 방식을 되짚어 보고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된 저의 Position에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했고, 고객과 KPMG의 성장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 후배 삼정인들과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뤄갈 것!

이진연 GNPC에 다녀온 후 KPMG의 Purpose와 Network의 힘을 새삼 느끼며 KPMG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 또한 KPMG를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고, 성실하게 일하는 후배들도 KPMG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기회가 많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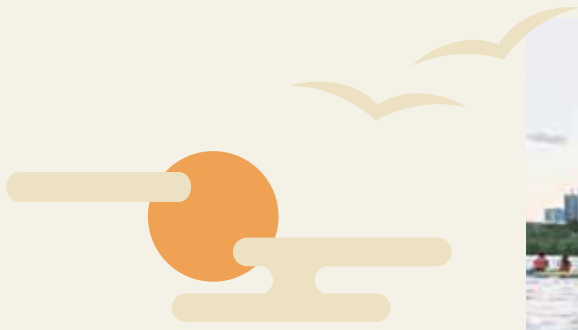


1. Bill Thomas 회장과 삼정KPMG 신입 파트너들이 함께한 만찬 현장
2. KPMG ASAPAC 신입 파트너들이 함께한 만찬에서 찰칵!
3. 삼정KPMG 신입 파트너들의 모습

노정환 전적으로 동의해요. 후배 삼정인 분들 모두가 KPMG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GNPC 프로그램 중에 "Leave the firm better than you found it"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보다 나은 법인이 되는데 보탬이 되어 이 말을 실천하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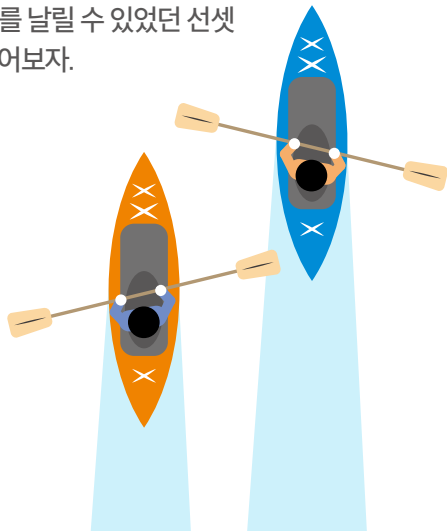
김태준 제가 느낀 이 행복을 후배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파트너로 승진하는데 큰 도움을 준 후배들이 저처럼 파트너가 되고, 또 그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보다 후배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박은숙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자세 그리고 협업과 신뢰가 조직 문화로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후배들과 소통하고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좋은 선례를 만들어 삼정KPMG가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향후에는 KPMG Global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거예요.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여유! 한강에서 즐긴 ‘선셋 카약’ 체험기

영국의 템스강, 프랑스의 센강이 있다면 우리나라 서울에는 아름다운 한강이 있다. 장여진 S.Senior(Global Tax본부)는 한강에서 ‘카약’을 타며, 서울의 야경을 즐기고 여유를 만끽하고 돌아왔단다. 바쁜 일상에 심을 더하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었던 선셋 카약 체험기를 들어보자.



일상을 벗어나 즐기는 카약 일일 체험!

안녕하세요! Global Tax본부의 장여진 S.Senior입니다. 이번 ‘Talk+Play+Love’에 노현희 S.Senior, 장윤선 Senior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같은 본부, 같은 팀원으로서 직급은 다르지만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나며 정을 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근을 하거나 퇴근 시간이 유동적인 관계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간단히 술 한잔하는 만남으로 제한되어 있었죠. 그러던 중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활동을 하면 좀 더 가까워지고 큰 추억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수제 맥주, 마카롱, 꽃꽂이 등 여러 활동을 고민해보았으나,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며 하는 체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인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봤어요. 웨이크보드, 패들보드, 카약 등 꽤 즐길 체험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나마 어렵지 않을 카약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한강 선셋 카약’을 즐기게 됐어요.

한강 위에서 즐긴 아름다운 선셋 타임!

카약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뚝섬유원지지역으로 향했어요. 역에서 15

분 거리에 윈드서핑장이 있는데요, 우리는 간식거리를 사 들고 오후 6시 30분쯤에 체험 장소에 도착했어요. 날씨도 좋고, 주말이라 사람들도 많아 한강을 따라 걷는 기분이 좋았어요. 같은 날, 카약 체험을 신청한 사람들이 약 30명 정도 모였어요. 함께 10분간 안전교육을 듣고요, 2인당 1카약을 받아바로 탑승했어요.

처음에는 물에 빠질까봐, 엄청 걱정했어요. 특히, 사온 간식들이 무거워서 카약이 가라앉으면 어쩌나, 지레 겁먹고 오두방정을 떨기도 했어요. 하하. 하지만, 막상 타보니 카약은 안정적으로 잘 떠 있었고, 노를 젓는데 특별히 어려운 기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처음 탔지만 금세 적응하고 즐길 수 있었어요.

우리들은 강사님들의 리드하에 노를 젓다 지칠 때쯤 한강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노를 젓고 여유롭게 카약을 즐겼어요. 미세먼지도 없었던 날이라 한강 주위 풍경들이 깨끗하게 눈에 들어왔고 마침 잠실타워 옆으로 보름달까지 떠서 완벽한 경치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강사님이 블루투스 스피커로 경치에 어울리는 잔잔한 기타 노래를 틀어주고 미리 준비한 맥주와 간식거리를 먹으며 여유를 즐기니 한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느낌이었죠. 특히, 강사님이 개인 카메라를 준비하셔서, 참여한 모든 분들께 선셋과 함께 인생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한강 위에서 카약을 타며 즐기던 시간만큼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나 고민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아름다운 풍경과 한강 위의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마치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웃는 여고생들처럼 깔깔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혼자가 아니라 친한 동료들과 같이 이 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의 큰 원동력이 되어주는 동료들!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는 이번 카약 체험 외에도, 지난 8월 초에 같이 싸이 콘서트를 갔던 적이 있어요. 이 콘서트는 공연 내내 관객들에게 물을 뿌려주기 때문에 흠뻑소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탠딩으로 표를 구매하여 공연 내내 한 번도 앉지 않고 계속 뛰며 콘서트를 즐겼어요. 내년에도 함께 또 가자고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저희 셋 모두 신나게 즐겼던 경험이었어요. 바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변함없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힘이 되어주는 팀원들이 있기에 회사 생활이 힘들거나 지칠 때 큰



한강에서 즐기는 선셋 카약

한강 야경 끝판왕, 선셋 카약을 독섬유원지에서 즐길 수 있다.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헨리가 선셋 카약을 타는 모습이 전파돼 인기를 끌었으며, 카약 외에도 윈드서핑 등을 즐길 수 있다.

■ 주소: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서울윈드서핑장 25.26호

■ 문의: 0507-1662-7350

힘이 되어주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돈독한 관계를 가진 동료들과 일을 한다는 것은 업무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 높은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면에서 'Talk+Play+Love'는 의미 있고 뜻깊은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Talk+Play+Love'를 잘 활용하여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체험을 하고 추억을 쌓으며 업무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미국의 문화와 에티켓

미국은 약 2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짧은 역사이지만, 미국이 지금의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미국만의 '자유와 평등 정신'이라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자유와 평등,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미국의 문화와 에티켓을 양철호 Manager를 통해 살펴본다.

직접적인 비판보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배려의 문화

미국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쉬운 사례로 회의 중에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이 좋은 생각이지만 다른 대안이 보다 적합할 수 있음을 설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말 시즌에 업무가 많다보니 저녁식사 시간을 놓치게 되었고 늦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음식점이 영업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피자를 사서 간단히 음료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호텔 휴게공간에서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다 먹고 정리할 즈음에 한 미국분이 와서 피자냄새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듣고 저는 '그 분도 피자를 드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나?'라고 단순히 생각했지만 다른 동료들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분의 언짢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 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미국인들의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저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복잡한 주문 방식!

미국에는 다양한 민족 및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에도 그들만의 다양한 기호 및 개인별 체질을 반영하여 주문합니다. 특히 복잡한 메뉴판에서 겨우 메뉴를 선택하고 나면 땅콩이나 조개와 같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는데 괜찮은지, 제외하고 싶은 재료가 있는지, 얼마나 조리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사이드메뉴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등등 많은 사항을 추가로 질문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서는 이런 질문 세례가 적잖이 부담됐습니다. 이런 질문 세례에 대답을 모두 마치면 가끔은

이것만은 꼭! 미국 Etiquette Plus+

1 재채기는 입을 가리고!
재채기를 할 경우 꼭 입을 가리고 한다. 미국에서는 공항내부에 공공장소와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재채기를 해야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안내하고 있으며 재채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감싸는 정도가 아니라 팔꿈치 안쪽부분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려 재채기를 한다.

2 정지 표지판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운전 중 정지 표지판(Stop Sign)이 보이는 경우 반드시 완전히 정지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저속으로 감속 후 출발하는 경우 경찰에게 교통범칙금(Traffic Ticket)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제가 생각했던 음식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동행이 있는 경우 첫 번째로 주문하지 않고 그 뒤에 주문하면서 Make it two, please! (같은 것으로 주세요!) 라고 단 한 문장으로 주문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종류의 질문을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개인 맞춤형 주문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고 시간만 많이 소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및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서로를 배려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필요한 불편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문화이자, 에티켓 '팁 문화'

식당이나 호텔과 같은 곳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팁(Tip) 문화 및 에티켓이야말로 주로 언급되는, 한국과 대비되는 미국의 문화이자 에티켓입니다. 주로 서버(Server)나 호텔 메이드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봉사료로서 식당에서는 점심에는 15%, 저녁에는 2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상이함.) 현금뿐 아니라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팁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미국에 도착해서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전까지는 팁을 지급하기 위해 식당에 갈 때는 꼭 현금을 들고 다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카운터라는 곳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담당서버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가지고 가서 서버가 결제하고 영수증을 가져다 주면 영수증을 받고 팁으로써 현금을 테이블에 놓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현금을 사용하지 않다가 미국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잔돈이 생기니 약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팀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잘 관찰해보니 카드결제 후 가져다 주는 영수증에 팁을 기재하는 란이 있



1. 2018년 5월 가족 여행에서 찍은 브루클린에서 바라본 뉴욕시티 야경
2. 2018 National training에서 함께 교육받은 Korea Practice 동료들과
3. 2018년 5월 노동절 연휴 여행에서 찍은 워싱턴 기념탑(Washington Monument)

었고 여기에 원하는 금액을 기록하면 나중에 음식점에서 손님이 팁을 위해 다시 카드를 주지 않아도 결제금액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결제 시 팁을 위해 2번 카드를 제시하리라고 혼자 상상해서 현금을 들고 다녔던 것이 머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CONTAC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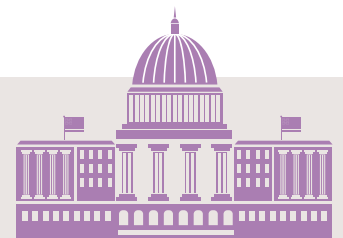
KPMG 미국 KOREA PRACTICE 양철호 MANAGER

Tel. +1 404 222 3000 / E-mail. cheolhoyang@KPMG.com

Global Etiquette

3 문을 잡아 주는 것이 예의
문을 열고 지날 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배려한다. 뒷사람이 2-3인 이상인 경우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사람이 문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뒤에 있는 모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진 않는다. 가끔 뒷사람과의 간격이 긴 경우 뒷사람이 오히려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를 주의한다.

4 팁을 주기 전에 Gratuity 항목부터 체크하기!
음식점들 중 일부는 음식값에 알아서 팁을 포함하여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 Tip이 아니라 Gratuity라는 항목으로 일정금액이 영수증에 포함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팁을 따로 주지 않는다. 결제하는 경우 영수증을 잘 살펴보고 팁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KPMG 미국 Korea Practice

KPMG US의 Korea Practice는 1982년 설립되어, 한국인 및 한국계 기업의 대부분이 위치한 뉴욕, LA, 애틀랜타 오피스에서 총 90여 명의 한국인(또는 한국계 미국인) Audit/Tax/Advisory 전문가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PMG US는 미국 내 Big 4 회계법인 중 Korea Practice의 매출 및 고객수가 가장 높아 약 60% 이상의 Market Share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Living the 7 Values! New Director가 생각하는 ‘Value based leadership’이란?

KPMG Story의 7 Values는 전 세계 197,000명의 KPMG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동 양식이다.
이번 호에서는 2018 New Director 승진자 교육에서 논의한 ‘Value based leadership’을 발현하기 위해
7 Values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업무와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New Director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 2. Value based leadership에 대한 토론 과정 3. Value based leadership에 대한 서로의 고민과 의견을 공유하는 모습

Q1. “7 Values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Value based leadership을 발현하기 위한 7 Values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요?”

솔선수범

Lead by example

- 필드에서 직접 이슈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
- 원칙을 고수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고객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글로벌 선진 사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용방안을 고민한다

존중

Respect the individual

- 내 의견을 먼저 이야기 하기 전에 경청하는 습관을 가진다.
- 남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진다.
- 대화를 통해 팀원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갖는다.

공헌

Improve communities

- 전문가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감사 기준이나 기타 업무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프로보노 활동, 중-고교 ‘직업인과의 만남’ 행사 등을 통해 회계사로서 사회적 가치와 직업전망 등에 대해 상담한다.
- 회계 투명성을 위해 전문가적인 의구심 견지, 기본과 원칙에 입각, 실질적인 Audit Planning & Review를 수행한다.

소통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 소통은 공감대와 솔직함이 필요하다.
- 진정한 소통을 위해 구성원의 성향, 능력, 상황을 파악 한다.
- 직접적 소통은 그룹 미팅으로 실현한다.

통찰력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 업무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한다.
- Specialist가 되기 위한 업무 분야를 선정한다.
- 고객사 담당자와 통화/방문(주2회) 하여 이슈를 지속 파악한다.

협업

Work together

- 부서 간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본부 회의 시 타 본부 상품 이해 시간을 가진다.
- 협업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 업무 범위 및 기대치에 대한 공감을 이루며 협업한다.

정직성실

Act with integrity

- 멘토링, 1:1 미팅을 통해 정직, 오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개인보다 팀, 본부, 회사의 발전을 위한 가치를 제시한다.
- 의사 결정 기준은 전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

NEWS

2018년 하반기 신입 Advisor를 환영합니다!

‘Trusted Advisor’로 거듭나기 위한 ‘Advisory 신입 입문교육’에 참여해



1. 환하게 웃으며 Activity에 참여 중인 신입 Advisor 2. KPMG Story에 대해 함께 고민해본 시간 3. KPMG의 비전 메시지를 담은 장식을 들고 찰칵! 4. 자랑스러운 2018 신입 Advisor 단체 사진

삼정KPMG는 2018 신입 회계사 채용에 이어, 하반기 Advisory 신입 공채를 채용했다. 새롭게 삼정KPMG 가족이 된 신입 Advisor들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 2박 3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신뢰받는 전문가(Trusted Advisor)로 거듭나기 위한 신입 입문교육인 ‘FY18 Advisory Fundamentals’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삼정KPMG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Knowing Our Culture’, 진정한 전문가의 의미를 짚어보는 ‘An Advisor at KPMG’ 교육을 비롯해 개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어떻게 팀으로 일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Self-Branding’ 활동과 비즈니스의 기본 매너와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술선수범, 협업, 존중, 통찰력, 소통, 공헌, 정직성실’이라는 KPMG의 7 Values를 이해하는 Value Mission Race와 Value Talks 세션을 체험하며 KPMG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동양식과 전문가로서 일하는 방식을 몸소 익힐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현업 선배들의 실무 강의에서 업무 진행 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및 노하우를 터득했으며,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4차 산업 혁명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 강연을 통해 인사이트를 갖추는 등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초석을 다졌다.

한편, 이번 ‘FY18 Advisory Fundamentals’ 주제는 ‘We are the Trusted Advisor of KPMG’였다. 이번 교육의 주제처럼, 모든 과정을 충실하게 수료한 2018 하반기 Advisory 신입 공채들이 삼정KPMG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배우며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보낸다.

‘우리가 바로 2018 신입 Advisor!’

질문: Q1.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은? Q2. 앞으로의 각오와 목표!



‘진정한 스페셜리스트’가 되긴 위한 마라톤의 시작!

김영준 Consultant (MCS2)

① 기억에 남는 것을 뽑는다면 ‘Team building: KPMG Values Mission Race’이었던 것 같아요. 동기들끼리 함께 문제에 부딪히고 미션을 돌파해내야 할 때마다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동기들도 프로그램 진행 동안 숨은 끼를 보여주면서 너무 즐겁게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러한 점은 현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으로서의 능력 발휘도 중요하지만, 팀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컨설턴트로서의 역량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② 직장생활은 100미터 달리기보다 마라톤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첫 마음’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지금의 열정과 패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간 동안에 많은 선배 Consultant님들께서 Consultant로서 가장 필요한 논리적 사고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살아있는 현업 경험 내용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나침반과 지도를 제공해주신 듯합니다. 지금의 ‘첫 마음’을 간직한 채로 주변 장애물에 흔들리지 않고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해 저만의 분야에서 ‘진정한 스페셜리스트’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멋진 삼성KPMG인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KPMG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뤄갈 것!

엄혜린 Consultant (SCG1)

①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인상 깊었던 교육을 딱 하나로 꼽기 어렵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은 SCG2 장성원 이사님께서 진행해주신 ‘Logical Thinking & Problem Solving’였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들을 풀면서 예리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사님처럼 카리스마와 실력 있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님의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 중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② 커리어의 시작을 훌륭한 분들과 삼성KPMG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동기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분들과 일하면서 저 스스로도 성장하고 회사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신뢰받는 전문가로!

윤준혁 Analyst (Deal Advisory5)

① 가장 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Personality Character Strengths Activity’입니다. 교육 대상자들은 리조트로 출발하기에 앞서 ‘강점 테스트’를 완료했고, 각자 배정받은 조 안에서 서로를 대표하는 성격과 강점에 대한 토론을 나눴으며, 끝으로 이러한 강점을 가진 자신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우리가 마침내 그 시선을 마주할 수 있었던 살 떨리는 시간이었으며, 결국 발견한 스스로의 정체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노라, 나만의 장점과 강점이었노라 지난 시간 살아온 삶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스레를 떨며 테스트 용지를 팔락였던 동기들이 끝에는 그 눈매에 진지함을 빚어내었던 것은, 아마 이 시간이 이변 연수 내내 배웠던 7 Values에 이어 나의 Value는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②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문득 떠오를 만큼, 삼성KPMG와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속한 Deal Advisory5본부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저의 포부는 이러한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직무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신입사원이 부서 내에서 차지하는 R&R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모르나, 그가 속한 부서와 고민하고 지향하는 바가 일치한다면 그에 걸맞은 수준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주어지는 일에 열심과 성실로 임하여 회사 밖에서만 아니라 안에서도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삼정KPMG,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 수상



삼정KPMG가 '제1회 회계의 날' 행사에서 표창을 수여 받았다.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회계의 날'은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국세기본법 등이 개정·공포되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기념식에는 많은 회계인, 정관계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삼정KPMG에서도 김교태 회장을 비롯해 많은 파트너들이 참석해 회계의 날 제정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삼정KPMG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공인회계사제도, 회계·감사제도 및 세제·세정 발전과 회계 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함께 사무직원으로서 회계업계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10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한은섭 부대표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허세봉 전무 ▲행정자치부 장관상 홍승모 상무 ▲국세청장상 이관범 전무, 김성현 전무 ▲한공회 회장상 강인혜 상무, 서무성 상무, 김태준 이사, 윤재철 이사, 한은미 Manager가 표창을 받으며 법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삼정KPMG, '인도·베트남·멕시코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지난 10월 15일,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인도·베트남·멕시코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무역전쟁으로 새롭게 투자·진출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 멕시코 3개국의 KPMG 파트너들과 현지에 파견 중인 삼정KPMG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국가별 투자환경과 법인설립 절차, 세무/회계 관련 이슈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발표자들은 "차세대 수출거점과 글로벌 지정학적 요충지로 인도와 베트남, 멕시코가 성장하고 있다"며, "국가별 경제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정책과 함께 풍부한 인적자원, 지리적 이점, 관세 혜택 등 성공 전략 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적극적인 해외 투자·진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 2011년부터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지원하기 위해 GKP(Global Korea Practice)를 설립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현재 21개국 29개 오피스에서 국내 기업들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고객의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KPMG, '제7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공동 개최 및 심사위원 참여



삼성KPMG가 지난 10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제7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 확산을 통한 혁신'을 위한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매일경제신문, 행정안전부, 삼성KPMG 관계자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지식대상 최종 심사위원회가 총 18곳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을 수여했다.

삼성KPMG 김교태 회장은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 심사를 통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경제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이어가며 지속 성장을 이뤄가는 기업과 기관의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기업과 기관들이 국민과 세계로부터 신뢰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적 리더 기관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7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는 부산광역시와 KT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SK인천 석유화학이 최우수상, 그 외 13곳의 행정기관 및 공공·민간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삼성KPMG, 중국 FTA/관세 제도 세미나 개최

삼성KPMG가 지난 10월 18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동차 및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중국 FTA/관세 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1부에서는 KPMG 중국 김현중 상무가 중미 무역전쟁 등 최근 중국의 수출입 및 통상 환경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이전거래, 과세가격, 보세, 외환, FTA 등 중국 소재 해외법인의 해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KPMG 중국 김현중 상무와 삼성KPMG 김태주 상무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FTA 및 관세 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KPMG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삼성KPMG 국제통상본부, 대미중 수출입 기업을 위한 세미나 열어

삼성KPMG국제통상본부가 지난 10월 22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KPMG US와 공동으로 '통상분쟁 세법개정 등 대미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PMG US와 삼성KPMG 파트너들이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개정세법 발효 등 대미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안내했으며, 미국 연방 개정세법에 대한 소개와 개정세법 하에서의 절세방안에 대한 강연도 진행했다.

또한, 24일에는 삼성KPMG국제통상본부와 한국무역협회(KITA)가 공동 주최한 '우리 대美中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 포인트 2가지' 세미나가 진행됐다.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KITA 제현정 차장이 미중통상전쟁, 301조, 반덤핑 규제 등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관세청 장진덕 사무관이 '한·중 연결 공정제품 생산기업의 원산지 판정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KITA 이희성 과장은 '대한중 반덤핑 품목 유사성에 따른 해당 기업의 유의사항'을 소개했고 삼성KPMG 심종선 회계사가 '우리 기업의 반덤핑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KPMG 고정우 상무, CFO포럼에서 '외감법에 따른 포렌식 활용' 주제로 강연



삼성KPMG의 후원으로 10월 24일, 삼성KPMG 본사에서 '한국 CFO협회 오찬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삼성KPMG 고정우 상무가 '외부감사환경의 변화 및 포렌식 조사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외부감사환경 변화와 외부 포렌식 조사 사례,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 KPMG Global Alternative Investment Tax Presentation' 개최



KPMG Tax와 Deal Advisory가 지난 10월 19일 역삼동 삼성KPMG 본사에서 '2018 KPMG Global Alternative Investment Tax Presentation'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6개국 KPMG Tax 파트너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해외 대체투자 주요 관심 지역인 미국, 영국, 독일, 룩셈부르크, 호주,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조세제도, 투자효과 및 세무적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또한 KPMG Deal Advisory 파트너들은 해외 투자와 관련한 트렌드를 설명하고 Q&A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FY18 New Director 그룹 멘토링 발대식 개최, 멘토 & 멘티 간의 상호 교류 증진 기대



삼성KPMG가 지난 10월 15일 강남 노보텔에서 'FY18 New Director 승진자 그룹 멘토링 발대식'을 개최했다. 'New Director 승진자 그룹 멘토링'은 New Director의 Leadership과 Business Development 역량 함양을 위해 진행하는 선배와의 그룹 멘토링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마음열기', '맞춤형 멘토링을 위한 다름의 이해', '코칭 대화 프로세스 이해', '성찰과 다짐' 등 New Director의 성공적인 역할 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삼성KPMG는 'New Director 승진자 그룹 멘토링' 이외에도 멘토와 멘티 간의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차세대 리더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KPMG, '4대 회계법인 야구대회' 우승



삼성KPMG가 '4대 회계법인 야구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 10월 27일 인천시 아라 베이스볼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삼성KPMG, 삼일 PwC, 딜로이트안진, EY한영 4대 회계법인이 참가했으며, 예선전과 결승전으로 진행됐다. 삼성KPMG 야구단은 예선전에서 EY한영을 22대 7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15대 3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날 MVP는 만루홈런과 함께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남궁헌재 Senior(ICE2)가 수상했다. 한편, 삼성KPMG 야구단은 올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만큼 2년 연속 우승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사랑나눔 삼성KPMG, '2018 NPO 파트너 페어' 참가



삼성KPMG는 10월 23~24일, 양일 간 '2018 NPO 파트너 페어'에 참가해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 2회째 개최되는 'NPO 파트너 페어'는 공익활동을 함께 할 파트너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로, 삼성KPMG 강창수 상무와 박정훈 이사가 '전문가' 섹션에서 회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총 11개 단체의 회계·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삼성KPMG는 앞으로도 전문 지식을 갖춘 임직원들과 함께 NPO(비영리단체)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자 미니인터뷰



강창수 상무 (IGH)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던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또, 회계사의 재능이 단순히 영리 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에서도 폭 넓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다짐을 갖게 됐습니다.



박정훈 이사 (IGH)

'NPO 파트너 페어'에 참여하면서 난생 처음 프로보노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특히, 제게 상담을 받은 분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NPO 파트너 페어'와 같은 활동에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 없이 참여하게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여 개인적인 만족도 느끼고 많은 사람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ic)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This is what we want to be

-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성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